

올 시즌 925명 K리그 그라운드 누빈다

하나원큐 K리그 2023 정기 선수등록 현황 전북·대전 46명 최다... 울산은 31명 '최소'

올 시즌 K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900명을 넘어선 1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4일 마감한 '하나원큐 K리그 2023' 정기 선수등록 현황을 27일 발표했다.

등록 마감 결과 K리그1 465명과 K리그2 460명 등 모두 925명의 선수가 올 시즌 K리그에서 활약하게 됐다. 등록 절차가 완료된 선수 924명과 등록 기간 내 국제이적확인서

(ITC) 발급 신청까지 완료된 선수 1명을 합한 숫자다.

올해 등록 선수 수는 지난해 정기 등록기간에 등록된 선수 855명에 비해 70명이 늘었다. 올 시즌부터 천안시티FC와 충북청주FC가 K리그2에 새로 참가하고, K4리그 참가 B팀 운영 구단이 지난해 4개(강원, 대구, 대전, 전북)에서 올해 부산이 추가돼 총 5개 팀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풀이되고 있다.

K리그1 12개 구단의 구단당 평균 인원은 38.8명이다. 전북과 대전이 46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등록했고, FC서울 45명, 강원FC 43명, 대구FC 42명 순이었다. 울산이 31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제주 32명, 광주 33명 등이었다.

K리그2 13개 구단의 구단당 평균 인원은 35.4명이다. 부산이 45명으로 최다, 충남아산이 30명으로 최소 인원을 등록했다.

22세 이하(U22) 선수는 K리그1 154명과 K리그2 123명 등 합계 277명으로 전년 대비 25명 늘었다. K리그1은 대구가 22명, K리그2는

부산이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K리그 유스 출신 선수는 K리그1 166명과 K리그2 159명 등 모두 325명으로 지난해보다 16명 늘었다. 자구단 유스 출신 선수가 가장 많은 구단은 전북으로, 전체 선수단 46명 중 17명이 전북 유스 시스템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FC서울, 수원삼성(이상 15명), 포항스틸러스(11명) 등 '명가'들이 10명 이상씩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준프로 계약을 통해 K리그를 뛰게 된 '고교생 K리거'는 전북 공시현과 부산 김민승 등 2명이다. 조상윤기자



27일 우루과이와 평가전을 앞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파주 NFC에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지성·김재현 대회신기록 1위 '명중'

교육감기 학생사격대회

김지성(제주고)과 김재현(제주중)이 대회신기록을 쏘며 제46회 교육감기 전도학생사격대회에서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김지성은 지난 25일 제주고등학교 사격장에서 열린 남교부 공기권총 개인전에서 김지성(제주고)이 570점으로 대회신기록(2022년 표선고 오승현 559점)을 세우며 1위를 차지했다. 2위와 3위에는 장대희

(표선고)와 김태현(제주고)이 이름을 올렸다. 단체전에서도 제주고가 1641점으로 대회신기록(2022 제주고 1593점)으로 정상에 올랐다.

여교부 공기권총 단체전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오예진, 강지예, 강서정, 정유진)가 1678점으로 1위를, 1568점을 기록한 표선고(장유진, 이유진, 이해정, 고다영)가 2위를 차지했다. 개인전에서도 대한민국의 사격 간판으로 성장하고 있는 오예진(제주여상)이 577점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그 뒤를 강지예(제주여상)와 장유진(표선고)이 이었다.

남중 공기권총 개인전에서는 김재현(제주중앙중)이 561점으로 지

난해 자신이 세운 대회기록(550점)을 갈아치우며 1위를 차지했다. 김건우, 박인성이 2, 3위에 올랐다. 중앙중은 단체전(김재현, 김건우, 박인성)에서도 1608점으로 대회신기록(2022 제주중앙중 1605점)과 함께 정상을 지켰다.

여중부 공기권총 단체전은 제주동여중(김유나, 박시연, 고유나, 김현지)이 우승을, 표선중(이수민, 박지율, 정현정, 박다경)이 2위를 차지했다. 개인전은 김유나, 이수민, 박시연 순으로 입상했다.

최우수 선수상은 개인전 대회신기록과 단체전 대회신기록을 수립한 김지성이 수상했다. 조상윤기자

육상간판 위미중·삼성초 대회 2연패

전도중별육상... 신제주초·신성여중 우승

위미중학교와 삼성초등학교가 전도 중별육상경기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했다.

위미중과 삼성초는 지난 25일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제45회 교육감기 및 회장배 전도중별육상경기대회(제52회 전국소년체전 최종선발전)에서 남중부와 여초등부에서 정상을 올랐다.

지난 대회 우승팀인 위미중은 금 6, 은 3, 동 3개 등 12개의 메달을 획

득하며 72점을 기록해 제주중(금 4, 은 6, 61점)과 서귀포대신중(금 1, 7점)을 물리치고 우승컵을 차지했다.

여초부의 삼성초도 금 4개와 동 2개 등 6개의 메달(총점 42점)을 수확하며 제주서초(금 2·은 2, 38점)와 외도초(금 1·은 3·동 3, 38점 이상 금메달 순)를 각각 따돌리고 지난해에 이어 최강자리를 지켰다. 특히 6학년 부서윤은 100m와 200m, 400m계주(양아연 6·고승연 5·신



서윤 6)에서 금빛 질주를 선보이며 팀의 우승에 힘을 보탰다.

남초부의 신제주초는 금 1, 은 7, 동 3개 등 11개의 메달(총점 65점)을 쓸어들리며, 외도초(금 5·은 1·동 1, 55점)와 한라초(금 2·은 1·동 1,

31점)를 꺾고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신성여중은 여중부에서 금 3, 은 2, 동 1개 등 6개(35점)를 따내며 위미중(금 1·은 1, 12점)을 물리치고 우승기를 가져갔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클린스만 "우리 좋은 팀... 좋은 경기할 것"

오늘 우루과이와 평가전 "이강인은 재능있는 선수"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두 번째 경기에 나서는 울프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은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를 상대로도 선전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클린스만 감독은 27일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루과이도 콜롬비아처럼 남미의 강호지만, 우리도 좋은 팀인 만큼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28일 오후 8시부터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우루과이와 평가전을 치른다.

24일 울산에서 열린 콜롬비아와의 평가전(2-2 무승부)에 이어 클린스만 감독 체제의 두 번째 A매

치다. 대표팀은 지난해 11월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맞붙어 0-0으로 비긴 뒤 4개월 만에 우루과이와 재경출한다.

콜롬비아와의 경기 때 대표팀은 주전 풀백 김진수(전북)가 허리 부상으로 뛸 수 없게 되는 악재를 만났다. 김진수는 결국 소집 해제됐고, 설영우(울산)가 대체 발탁됐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 포지션과 관련한 "콜롬비아전 때 이기제(수원)가 들어와 좋은 모습을 보였다"며 자신임을 시사했다.

콜롬비아전 때 교체로 출전했던 이강인(마요르카)에 대해선 "어리고 재능 있는 선수다. 한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다는 걸 몸소 느꼈다"고 평가하며 "소속팀에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더 좋은 선수가 되면 대표팀에서의 출전 시간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억원 기획보증보험 가입 양국정부인허가조건

출발확정 제주항공으로 떠나는 **6월황금연휴 클락전세기**

제주 ↔ 필리핀(클락 & 마닐라) 3박5일

클락 클럽	159만원 (54H/4조이상 단독)	클락&마닐라 관광	125만원 (미취학아동 : 95만)	클락 항공권	78만원 (한정판매)
--------------	-------------------------------	----------------------	-------------------------------	---------------	-----------------------

06. 03(토) ~ 06.07(수) 출국 22:00-00:30 귀국 02:00-06:30

니하오여행사 064-722-6638 포함 사항 : 왕복항공료, 호텔, 차량료, 한국어가이드, 식사, 입장료, 여행자보험, 그린피/54H, 캐디피&카트피등
 불포함사항 : 가이드&기사탑(\$30), 클럽식, 캐디팁(18홀/\$2) **전세기의 경우 양국(국토교통부)의 허가에 따라 기재된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